

#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영산강 자연성 회복 나선다

## 환경부 2021년 업무보고

환경부가 올해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과 영산강 자연성회복 계획 수립, 미래차 30만대 시대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본격적 추진한다.

환경부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세부과제를 담은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탄소중립 목표 향한 이행체계 구축...그린뉴딜 체계성과 창출

환경부는 올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폐트병 투명 재질을 의무화하는 등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기반 구축 ... 녹색 일자리 3만여 개 창출

### 미래차 30만대 시대 ... 연내 충전기 3만기·수소충전기 100기 신설

19% 감축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홍수에 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또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 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2021년 18%, 전기·수소차 10%)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여기에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

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 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국민 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미세먼지 개선·폐기물 문제 해결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 $\mu\text{g}/\text{m}^3$ (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하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또 입체적 미세먼

지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정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 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한다. 또한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를 고도화하고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 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 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 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 ◇4년간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소, 탄소중립 선언 등 성과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탄소중립·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2019년에 전년 대비 3.4% 감소(잠정)했다.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그간 23~26 $\mu\text{g}/\text{m}^3$ 에 정체돼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에는 19 $\mu\text{g}/\text{m}^3$ 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더불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물관리 일원화 조치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광주시 서구는 최근 지역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전시회를 갖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생태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렸다. (서구청 제공)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 통합 점검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일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처, 사업장의 환경관리 능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환경관리 통합조사단'을 구성해 2월부터 통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관리 통합조사단은 지역내 환경이슈, 환경관리 취약 분야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환경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와 지역 환경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합조사단 운영은 매일 부시간 협의를 통해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2월부터 연 10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및 사업장 규모 등 여건에 따라 점검일정 및 방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통합조사단은 오염행위의 감시·단속과 함께 사업장 환경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점검의 실효성 제고 및 사업장 부담 경감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동구의회, 탄소중립 녹색전환 세미나 개최

광주시 동구의회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거듭나고 있다.

2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동구청 3층 영산회의실에서 '탄소중립 녹색전환 동구를 위한 의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탄소중립 녹색전환 동구를 위한 의정연구회'가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첫 걸음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윤희철 광주지속가능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 다양한 환경활동가들이 참여해 그린뉴딜의 기본개념 이해와 더불어 에너지, 교통, 건축, 전환마을 등 분야별로 탄소중립 녹색전환도시를 위한 비전 제시했다.

의정연구회는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행·의정도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책 도출과 더불어 선진지 견학,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서구·자활센터, 지역사회 자연순환사업 업무협약

광주시 서구는 최근 구청 상황실에서 광주서구 지역자활센터와 지역사회 자원순환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 모델을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대석 서구청장, 박해경 광주서구지역자

활센터장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자원순환을 위한 폐기물 전문 수거망 구축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교류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자원나라자활사업단'을 신설해 지역 커피전문점 및 재활용업체와 연계해 재활

용품을 수거·처리하게 되며, 향후 재활용품 전문 수거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자활능력 배양과 일자리 제공은 물론 탄소배출 감축 등 지구온난화 방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안동순 지리산생태탐방원 신임 원장 부임

국립공원공단 지리산생태탐방원은 2일 안동순(56) 신임 원장(사진)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안 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1992년 국립공원공단에 입사, 지리산·내장산·월출산·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본사 환경기술부장을 역임했다. 안 원장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과 문

화자원을 바탕으로 국립공원 생태관광 거점시설 구축과 더불어 국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생태탐방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김민석 기자 mskim@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